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 三國遺事 所載 「桃花女 · 鼻荊郎」 條의 分析을 中心으로

저자 (Authors)	金杜珍
출처 (Source)	진단학보 , (69), 1990.6, 17-38 (22 pages) THE CHIN-TAN HAKPO , (69), 1990.6, 17-38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진단학회 The Chin-Tan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76252
APA Style	金杜珍 (1990).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진단학보, (69), 17-3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5 11: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三國遺事 所載「桃花女·鼻荊郎」條의 分析을 中心으로—

金 杜 珍

(國民大 教授)

<目 次>

- | | |
|--------------------|------------------|
| I. 序 言 | IV. 即位初 王室의 지지세력 |
| II. 「桃花女·鼻荊郎」條의 內容 | V. 制度의 整備 |
| III. 鼻荊郎의 政治的 性向 | VI. 結 語 |

I. 序 言

新羅 中古時代의 眞種說話에 대해 關心을 가져오면서, 그것이 當代 王室의 支配理念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지만 時期別로 다소 變化하고 있음을 留意하게 되었다. 眞興王代의 轉輪聖王觀念이 眞平王代에는 釋宗意識을 포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는가 하면 善德女王은 帝釋信仰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러한 미세한 信仰·思想의 變化는 역시 中古時代의 政治·社會와 연관되고 있다. 釋宗意識으로 眞平王代 初期에는 釋迦佛信仰이 流行했는데, 同王代 後期로 가면서 오히려 帝釋信仰이 증시되어 그것이 善德王代에 크게 受容되었다. 그런 면에서 眞平王代에는 初期와 後期로 思想史上的 變化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며,¹⁾ 따라서 그것과 연관하여 眞平王代 初期와 後期の 社會體制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왔다. 本稿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려는 目的에서 쓰여지게 될 것이다.

眞智王이 廢位되고 眞平王이 即位하는 과정은 상당한 政治的 變化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過程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상황을 알려 줄만한 正史의 資料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本稿에서 『三國遺事』所載의 「桃花女·鼻荊郎」條를 分析하여 眞平王의 即位過程이나 同王代 初期의 政治상황을 이해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다. 「桃花女·鼻荊郎」條는 비록 믿기 어려운 說話로 전하지만, 그러한 說話가 만들어지는 때에는 그럴만한 일정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그것을 당시의 政治·社會상황과 密着시켜 分析하고자 한다.

「桃花女·鼻荊郎」條를 分析하기 위해 우선 眞平王代 初期의 人物들에 대해 광범하게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鼻荊郎의 活動이 그러한 人物들의 政治性向과 어떻게 얽혀있는 지

1) 金杜珍 「新羅 眞平王代의 釋迦佛信仰」(『韓國學論叢』 10, 1988)

에 대해 關心을 가지면서, 당시 王室을 뒷받침하는 지지세력의 實體에 접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眞平王代에 정비된 官制를 추출하여 우선 그것을 그 以前時代에 정비되는 官制는 물론, 그 이후인 眞德王代에서 神文王代에 이르기까지 두어지는 官制와 면밀히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眞平王代 官制整備의 성격, 특히 眞平王代 後期와 비교한 同王代 初期에 官制整備가 어떠한 方向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II. 「桃花女·鼻荊郎」條의 內容

眞興王代에는 新羅가 對外的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시기였다. 異次頓의 殉教로 公認되었던 佛敎를 크게 일으킨 眞興王은 무엇보다도 拓境事業에 힘썼다. 漢江流域을 確保하여 中國과 直接 교섭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大伽倻를 平定함으로써 洛東江 유역을 占有하였다. 그런가하면 花郎徒를 改創하여 각 門戶別로 흩어진 未成年集團을 군사동원 체제 속에 흡수함으로써,²⁾ 新羅는 高句麗·百濟·突厥과 倭로 이어진 聯合勢力에 能動的으로 대처하면서 國難을 극복하여 갔다.

征服事業의 진척과 함께 稱元하거나 國史를 편찬하면서 王權이 비교적 安定되어 간³⁾ 眞興王代에도, 王室 내부에서 政權爭奪을 위한 싸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 <表 1>을 참고하기로 하자.

眞興王은 두 아들이 있었다. 長子는 銅輪인데 同王 27年(605)에 太子로 冊封되었다. 그는 同王 33年에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죽었기 때문에 次子인 舍輪이 王位를 이어받아 眞智王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記錄만으로 銅輪系와 舍輪系 사이의 對立을 추측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桃花女·鼻荊郎」條는 眞智王代와 眞平王代の 政治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이 그 내용이다.

- ③ 第25代 舍輪王의 諡號는 眞智大王이며 姓은 金氏이다. 王妃는 起烏公의 딸인 知刀夫人이다. 大建 8年(576) 丙申<古本에 11年 己亥라 함은 잘못이다.>에 即位하여 御國 4年만에 政事가 어지럽고 荒姪함으로 하여 國人들이 그를 廢位시켰다. 이전에 沙梁部の 庶女가 姿容이 뛰어나게 예뻐서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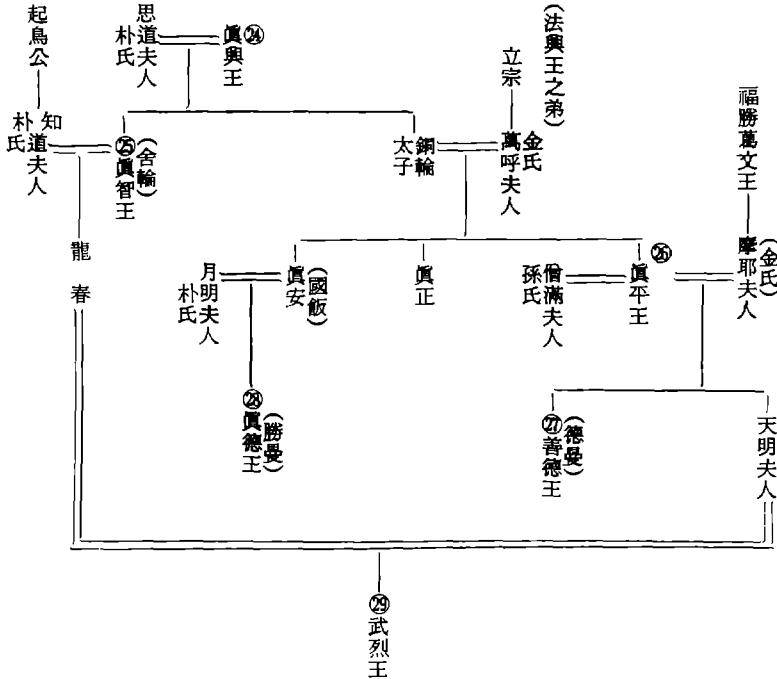
2) 三品彩英, 新羅 花郎의 研究(1943, pp. 11~12)

李基東「新羅 花郎徒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69, 1976;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0, 韓國研究院, pp. 310~326)

여기서 花郎徒의 前身은 各 門戶別로 存在했던 未成年集團이라 했다. 다만 그러한 集團을 花郎徒로 改倉하여 中央에 花主를 두고 그 밑에 全國을 묶는 一元的 組織으로 成立시키면서, 그것은 從前의 宗教의이고 遊娛의 성격에서 敎育的 기능이 더 부각되고, 有事時에 군사적인 동원체제로 변모되어 갔다. 실제 新羅社會에 花郎이 戰功을 수립하는 경우가 허다히 나타나 있다.

- 3) 眞興王 19年(588)에 貴戚子弟 및 六部豪民을 國原 즉 변방으로 移徙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部族聯盟의 族的 紐帶를 끊고 王權을 強化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表 1〉 眞平王代를 中心한 王室家系



때에 桃花娘이라 불렀다. 王이 듣고 宮中으로 불러들여 사랑하려 하니, 桃花女가 말하기를 “女
子가 지키는 바는 두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남편이 있는 데에도 다른 데로 가게 한다면,
이는 비록 萬乘의 위엄으로도 폐앗을(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王이 이르기를 “너
를 죽이겠다면 어떻겠느냐”고 하니, 女子가 다시 말하기를 “차라리 거리에서 죽음을 당할지언
정 먹은 마음을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고 했다. 王이 회롱하여 말하기를 “남편이 없으면 가능
하느냐”고 하니, “되겠습니다”고 대답하였다. 王이 (桃花女를) 돌려보내 주었다.

이 해에 王이 폐위되어 죽고, 그 후 3년만에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 10여일 후 夜中에 홀연히
王이 平常과 같이 그 女子의 房에 이르러 말하기를 “네가 옛날에 許諾하였으니, 이제 너의 남편
이 없음으로 되겠느냐”고 했다. 女子가 경솔히 許諾할 수 없어서 父母에게 告하였더니, 父母는
“君王의 勅을 어찌 피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房으로 들어 보냈다. 王이 七日을 머무르는데 항상
五色구름이 집을 덮고 香氣가 밤에 가득하였다. 七日後에 홀연히 종적이 사라졌고 그 女子는 因
하여 태기를 가졌다. 만삭이 되어 解産하려 할 때 天地가 진동하였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니 이
름을 鼻荊이라 하였다.

- ① I 眞平大王이 그 殊異함을 듣고 鼻荊을 거두어 宮中에서 길렀다. 15세가 되어 執事를 시켰는데,
매일 밤만 되면 멀리 달아나 노는 지라, 王이 勇士 50人을 시켜 그를 지키게 했다. (그는) 매번
月城을 넘어 서쪽의 荒川岸上(京城 서쪽에 있다.)에 가서 鬼衆을 이끌고 놀았다. 勇士들이 林中
에 엎드려 살펴보았는데, 鬼衆이 諸寺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각자 흩어지니, 鼻荊郎도
역시 돌아갔다. 군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아뢰니, 王이 鼻荊을 불러 묻기를 “네가 귀신을 데리고

논다하니 참말이나”고 하니 鼻荊郎이 “네 그렇습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네가 鬼衆을 부러 神元寺 북쪽 개천(혹은 神衆寺라 하나 잘못이다. 또는 荒川 동쪽의 깊은 개천이라 한다.)에 다리를 놓아라”고 했다. 鼻荊이 朝勅을 받들어 鬼衆의 무리들 이끌고 들을 갈아서,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그러므로 鬼橋라 이름하였다.

- ⑥Ⅱ 王이 또 물기를 “鬼衆 中에 人間으로 出現하여 朝政을 도울만한 자가 있느냐”고 하니 말하기를 “吉達이 있는데 가히 國政을 도울만 합니다”라고 했다. 王이 “메려 오라”고 했다. 翌日(그가) 鼻荊과 같이 와서 비므로 執事 벼슬을 시켰더니, 과연 忠直하기가 들도 없었다. 이 때에 角干 林宗이 아들이 없자, 王이 朝勅으로 (吉達을) 아들로 삼게 했다. 林宗이 吉達에게 命하여 興輪寺 남쪽의 樓門을 짓게 했더니, 매일 밤 吉達이 그 門上에서 宿居함으로 吉達門이라 했다. 하루는 吉達이 여우로 변하여 도망가므로 鼻荊이 鬼神을 시켜 그를 잡아 죽였다. 고로 鬼衆이 鼻荊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여 달아났다. (『三國遺事』 卷 1)

上記한 說話는 크게 두 部分으로 나뉘어진다. ②部分은 眞智王과 얽힌 事件을 說明하고 있다면 ①部分은 眞平王代에 관한 記事이다. 우선 ②部分은 沙梁部の 庶女인 桃花女와 眞智王의 魂과의 사이에서 鼻荊郎이 태어나기까지의 事實을 記錄하였는데, 眞智王이 統治한 4년간에 政治가 문란하고 어지러워 國人에 의해 王이 廢位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三國史記』에는 眞智王이 即位한지 四年 만에 특별한 이유없이 昇遐한 것으로 記錄되어 있으나, 『三國遺事』에서는 國人에게 廢位되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두 記錄 중 眞實을 알려주는 것은 後者임이 틀림없다. 眞智王은 政治를 문란하게 하였기 때문에 廢位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를 廢位시킨 세력은 眞智王權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었을 법하다. 그렇다면 그들을 眞平王을 옹립한 세력으로 이해해서 좋을 듯하다. 眞平王은 銅輪太子의 아들이며, 그의 即位에 銅輪系 血緣集團의 도움을 받았을 법하다. 眞平王이 即位하는 이러한 사정은 역시 舍輪系와 銅輪系 사이에 王位를 둘러싼 암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智證王 以後 中古王室은 朴氏를 王妃族으로 맞이하면서⁴⁾ 貴族聯合 政權을 성립시켰다.⁵⁾ 그렇지만 中古王室 내에는 王妃族까지 金氏로 맞는, 이른바 奈勿麻立干에서 炤知麻立干에 이르기까지의 胄世적인 王族의 血緣意識을 再現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었다. 眞智王의 夫人이 朴氏 知道夫人이었음에 대해 銅輪의 夫人은 金氏인 萬呼夫人이며 智證王의 아들인 立宗葛文王의 딸로 알려져 있다. 眞平王의 夫人 역시 金氏인 麻耶夫人이며 福勝葛文王의 딸이다.⁶⁾ 곧 中古時代 王室 내부에 서로 血緣意識을 달리하는 銅輪系와 舍輪系가 存在했으며, 그들 사이의 對立은 太子인 銅輪이 죽은 다음에 眞智王이 서고, 또 그는 國人에 의해

4) 李基東 「新羅 中古時代 血緣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震檀學報』 40, 1975;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pp. 94~98)

5) 李基白 「新羅時代의 葛文王」(『歷史學報』 53, 1973;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p. 28)

6) 眞平王의 또한 夫人은 孫氏인 僧滿夫人이다. 六頭品貴族으로 알려진 孫氏를 王妃族으로 등장시킨 셈이다. (李基白 「新羅 六頭品 研究」(『省谷論叢』 2, 1971; 上同書, p. 55)) 그러한 王室의 意圖는 역시 그 이전 眞智王에 이르기까지 朴氏族을 王妃族으로 등장시켜 貴族聯合을 시도함으로써, 安定을 꾀해왔던 中古王室을 제어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했을 법하다.

⑥部分은 眞智王의 아들인 鼻荊郎이 眞平王의 宮中에서 길러지면서, 眞平王代의 政治에 參與하는 內容으로 구성되어 있다. 鼻荊郎은 15세 되던 해에 執事가 되었으며, 王政을 보필할만한 자로서 鬼類 중의 吉達을 천거하고 있다. 곧 그는 眞平王代의 王政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런데 鼻荊郎은 나면서부터 宮中에서 길러져서 15세에 執事가 되었으므로, 이때는 眞平王 15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時期였다.

鼻荊郎의 說話는 眞平王代 後期에까지 얽히는 것 같지는 않다. 鼻荊郎이 천거한 吉達이 바로 鼻荊郎 자신에 의해 처단되는 사실은 그가 以前과 같은 性格의 政治的 位置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데 무언가 의심할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鼻荊郎說話가 보여주는 모습은 적어도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 社會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된다.⁷⁾ 眞平王代는 많은 制度를 정비하면서 王權이 점점 強化되어 가는 시기이지만, 初期와 後期の 王權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어쩌면 後期로 가면서 王權이 專制主義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王權은 專制化의 기반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하였다.⁸⁾ 專制主義의 核心 기구인 執事部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이를 알려준다. 執事部의 侍中이 設置되는 것은 眞德王代에 이루어졌다.

眞平王代에 꾸준히 王權이 強化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獨尊의인 王族意識이 싹트고 있었다.⁹⁾ 이러한 王族意識이 곧 聖骨觀念인데, 그것은 眞平王系가 스스로를 釋迦族과 연결시키려는 釋宗意識과 연관된 것이다.¹⁰⁾ 眞平王代의 釋宗意識은 釋迦佛信仰을 갈면서 전개되었다. 말하자면 王室의 釋宗意識은 釋迦佛信仰의 流行과 密接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釋迦佛信仰은 眞平王代 初期에 流行하였고, 眞平王代 末期에서부터 善德王代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帝釋信仰이 크게 대두하였다.

帝釋信仰은 釋迦佛信仰과 密着되어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엄격히 말해 그것보다는 殊勝하지 못한 것이다. 釋宗意識의 成立에 영향력이 있었던 釋迦佛信仰이 眞平王代 末期에 계속해서 강조되지 못했던 면에서, 말하자면 사상사적인 측면으로 유추해서 眞平王代는 初期

7) 비록 政治的 活動을 하는 시기는 15세 이후라고 記錄되어 있을 지라도, 鼻荊郎은 태어나면서 부터 宮中에서 길러지는 사실은 어쩌면 鼻荊郎說話를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社會的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8) 李期白·李基東 共著, 『韓國史講座 古代篇』(一潮閣, 1982, pp. 185~186) 참조.

그렇지만 金晶淑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所謂 專制王權의 成立과 關聯하여——」(『韓國史研究』 52, 1986, pp. 15~26)에서는 眞平王代에 專制王權이 成立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李晶淑氏는 專制王權의 成立으로 眞平王 44年(922)의 內省 設置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때 內省을 장악한 세력은 眞平王의 親衛세력이었다기 보다는 龍春 즉 舍輪系였다. 이들의 權力 장악이 銅輪系의 의사와는 달리 獨自의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면, 王權의 專制化와는 달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9)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歷史學報』 53·54合, 1972;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0, 韓國研究院, pp. 86~89)

10) 金杜珍 「新羅 眞平王代의 釋迦佛信仰」(pp. 33~36)

와 後期の 社會體制에 무언가 變化가 있었을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¹¹⁾ 그렇게 되면 眞平王代의 制度整備 과정도 일단 初期와 後期를 갈라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眞平王代를 크게 前後期로 구별해야 할 必要를 느꼈는데, 鼻荊郎이 등장하는 분위기는 眞平王代 初期 社會상황을 이해시켜주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Ⅲ. 鼻荊郎의 政治的 性向

眞平王代 初期의 新羅社會를 이해함에 있어서 眞興王의 太子인 銅輪系 세력의 동장은 주목될 수 있다. 사실 眞平王이 옹립되는 사정이 선명하게 부각되어질 때,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社會상황이 보다 분명히 들어날 것이다. 鼻荊郎說話가 眞智王과 眞平王의 交替를 배경으로 成立되어진 說話이기 때문에, 그것의 分析은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權力이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이끌어 내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鼻荊郎은 說話의 人物이며 實存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鼻荊郎의 活動을 추적하여 당시의 政治상황을 이해하려는데 限界性이 없지 않다. 다만 說話는 完全히 가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일정한 社會的·歷史的 事實을 은유적으로 說明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說話에 나타난 내용이 正史에서 다루지 못한 歷史的 眞實을 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鼻荊郎說話는 『三國史記』 등의 史書에서 밝히기 어려운 部分을 간직하고 있어서, 어쩌면 眞實한 歷史的 事實을 이야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鼻荊郎은 眞智王의 아들인 셈인데, 宮中에서 길러져 眞平王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眞智王의 아들로서 歷史的 實際 人物은 龍春이다. 龍春은 眞平王代 以後 歷史的 主導勢力으로 등장한 金春秋의 父親인데, 眞平王代 初期의 行蹟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같은 眞智王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鼻荊郎과 龍春은 무언가 關係될 수 있을 법하다. 적어도 鼻荊郎이나 龍春의 行蹟은 眞平王代 初期 舍輪系 세력의 動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鼻荊郎은 眞平王代 初期에 王室과 어느 정도 密着되어 있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가 執事에 補任되었음이 이를 알려준다. 執事職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王의 家臣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¹²⁾ 宮中の 업무를 관장하는 近侍職으로 파악된다.¹³⁾ 그렇다면 鼻荊郎이 王의 近侍職에 任命되는 說話의 形成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말하자면 現實적으로 王位를 장악한 銅輪系와 對立될 수 있는 舍輪系가 王의 近侍職에 補任될 수 있었는지가 의심될 수 있다. 이런 문제와 연관시켜 龍春이 眞平王의 딸인 天明

11) 上同 論文, p. 15~23.

12) 李基白 「新羅 執事部의 成立」(『震檀學報』 25·26·27合輯, 196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一潮閣, pp. 15~52)

13) 李文基 「新羅 中古의 國王 近侍集團」(『歷史教育論集』 5, (1983, 慶北大 師大, p. 81)

夫人과 婚姻하고 있음을 留念할 必要가 있다.

鼻荊郎이 宮中에서 길러지는 것과 龍春이 天明夫人과 結婚하는 사실은 무언가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을 鼻荊郎이 뒷날 龍春의 存在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꾸며진 人物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물론 鼻荊郎과 龍春의 行蹟 사이에는 반드시 一致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이러한 추론이 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鼻荊郎說話를 통해 龍春 등 당시 舍輪系 세력의 政治的 立場을 추론해 봄은 타당하게 생각된다.

鼻荊郎과 龍春을 近接시킬 수 있는 소지는 더 찾아질 수 있다. 鼻荊郎은 沙梁部와 緣故되어 있다. 그의 어머니 桃花女는 沙梁部人이었으며, 그 집안은 역시 沙梁部 내에서 상당한 세력기반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桃花女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는 眞智王의 魂과 因緣을 맺고 있다. 父母의 등장은 이 說話가 桃花女 個人이 中心이 되어 形成되어진 것이 아닌, 말하자면 그 家門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해 준다. 眞智王이 남편을 가진 桃花女를 宮中으로 불러들여 사랑하려 하자, 桃花女는 “萬乘의 위엄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다. 桃花女가 眞智王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王室의 위엄이 굴절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萬乘의 위엄이 굴절되는 이유는 倫理的인 問題로 나타나 있지만, 모르긴 해도 沙梁部 내의 桃花女 家門이 가졌던 세력기반과도 관련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新羅 中古時代에 六部 중 沙梁部와 牟梁部 세력이 가장 우세하여서, 執事部 이의 중요한 官府의 長은 2명으로 각각 이들 두 部 出身이 등용되었다.¹⁴⁾ 그런데 眞平王代 이후 沙梁部가 金春秋 勢力과 연관되고 있음이 흥미롭다. 春秋의 夫人은 金庾信의 누이인 文明王后인데, 언니가 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꿈을 비단으로 샀다.

꿈에 西岳에 올라 소변을 누니 서울에 가득찼다. (『三國遺事』 卷 1, 太宗春秋公條)

여기의 西岳은 兄山이다. 『三國史記』에는 文明王后의 언니가 “西쪽 兄山の 頂山에 올라 오줌을 누니, 그것이 國內에 가득찼다”(卷 6, 文武王即位年條)고 했다. 兄山은 慶州의 西쪽 名山으로 沙梁部의 聖山이다. 文明王后가 兄山에 올라 누 오줌이 서울이나 國內에 가득찼다는 표현은 武烈王系가 新羅中代를 풍미하여 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¹⁵⁾ 이러한 說話의 形成으로 보아 武烈王系 즉 舍輪系는 沙梁部에 굳건한 세력기반을 가졌을 것으로 생

14) 李基白 「稟主考」(『李相伯博士 回甲紀念論叢』, 1964; 前掲書, pp. 145~147)

眞興王巡狩碑의 隨駕人名 중 同一官職에 2명의 臣下가 記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 曠部(즉 牟梁部)와 沙梁部 出身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六部 중에서도 沙梁部와 牟梁部가 가장 有力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15) 『三國遺事』 卷1, 太宗 春秋公條에 「王與庾信 神謀戮力 一統三韓 有大功於社稷 故廟號太宗 太子法敏·角干仁問·角干文王·角干老且·角干智鏡·角干愷元等 皆文姬之所出也 當時買夢之徵 現於此矣」라 하였다. 文明王后가 언니로부터 꿈을 산 徵兆는 武烈王과 그녀의 所生인 法敏·仁問·文王·老且·智鏡·愷元 등이 新羅中代를 支配해 감으로써 現實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실은 文明王后의 所生이 中代社會를 支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說話가 뒤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각되며, 龍春 역시 沙梁部와 緣故되어 있었음이 分明하다.

舍輪系가 沙梁部와 연결되고 있었다면 銅輪系는 오히려 牟梁部와 緣故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眞平王의 後妃인 僧滿夫人이 孫氏였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孫氏는 牟梁部로 개편된 茂山大樹村의 長인 俱禮馬의 後孫에게 내려진 姓氏였지만, 사실 孫氏로 活動한 人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¹⁶⁾ 俱禮馬를 孫氏의 시조로 삼음은 孫氏가 특별히 牟梁部와 緣故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眞平王의 後妃가 孫氏였다는 사실은 銅輪系가 牟梁部와 상당한 연결을 가졌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孝昭王代에 牟梁里 사람들이 官職에서 축출되는 사례는 舍輪系와 銅輪系의 세력이 沙梁部 및 牟梁部와 얽히면서, 中代의 支配者 즉 舍輪系 세력에 의해 牟梁里人들이 去勢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¹⁷⁾ 眞平王系와는 달리 鼻荊郎의 어머니가 沙梁部 出身인 것과 龍春이 沙梁部와 緣故될 수 있음은 무언가 연결이 가능한 것이며, 일정한 歷史的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다만 龍春은 武烈王系 세력을 일으키는 장본인인데, 武烈王系의 政治性向은 龍春의 이미지와 近接될 수 있는 鼻荊郎의 行蹟과는 맞지 않는 점을 다소 지니고 있다. 眞德王 以後 金春秋와 金庾信이 주도한 專制主義로의 改革政治는 크게 보아 中國의 制度를 도입하는 漢化政策으로 추진되었다. 말하자면 唐의 制度를 모방하면서 土着的인 新羅的 傳統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眞骨貴族 세력을 억압함으로써 王權을 強化하여 專制主義를 成立시켰는데, 그러기 위해 眞骨貴族이 걸머지고 있었던 新羅的 傳統을¹⁸⁾ 改革하고는 中國的인 普遍的인 制度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鼻荊郎은 執事에 任命되고 난 뒤에도 매일 밤이 되면 鬼衆을 거느리고 놀았으며, 그들 중에 國政을 輔任할 수 있는 자인 吉達을 천거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그는 鬼衆을 부려 神元寺 북쪽 냇물의 다리를 놓았다. 이 다리가 鬼橋로 불리워졌다. 이와 같이 鬼衆과 交流하고 그들을 使役시킬 수 있는 能力을 가진 鼻荊郎은 新羅 土着的 傳統을 중시한 人物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鼻荊郎은 분명 뒤의 金春秋 一派와는 政治的 性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들과 부합되는 면을 지니고 있었음도 유념되어야 한다.

鼻荊郎은 자신이 鬼衆에서 천거한 吉達을 처형하고 있다. 吉達이 여우로 변하여 도망가자 鼻荊郎은 鬼衆을 시켜 그를 잡아 죽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鬼衆이 鼻荊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달아났다고 한다. 결국 鼻荊郎은 鬼衆을 쫓는 能力을 가졌으며 오히려 鬼衆이 무서워하는 存在였고, 바로 이 점이 鼻荊郎의 성격으로 강조된 셈이다. 鼻荊郎 說話가

16) 孫氏로서 알려진 人物은 興德王代에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는 牟梁里人 孫順이 있다. 그의 三國史記 卷8, 神文王 3年 5月條에 孫文이 나오고 있으나, 孫文이 孫氏인지는 分明하지 않다. 李基白「新羅 六頭品 研究」(『省谷論叢』 2, 1971; 前掲書, p. 55)

17) 李鍾旭「三國遺事 竹旨郎條에 대한 一考察」(『韓國傳統文化研究』 2, 1986, 曉星女大, 韓國傳統文化研究所, pp. 221~222)

18) 李基白「金大問과 그의 史學」(『歷史學報』 77, 1978; 『韓國史學의 方向』, 1979, 一潮閣, p. 15)

鬼衆을 쫓는 대목으로 끝맺고 있음은 留意되어야 할 것이다. 鼻荊郎은 鬼衆을 부리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과 맞지 않게 되었다.

鼻荊郎은 新羅 土着的인 傳統에 緣故된 人物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배치되는 성격일 면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吉達과 鼻荊郎 사이에는 이해가 엇갈리게 되었고, 그러한 對立의 결과 吉達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鼻荊郎과 對立된 吉達은 바로 鬼衆에 속했던 人物이며 특히 興輪寺의 남쪽 門樓 즉 吉達門을 세웠다. 이러한 사정은 吉達이 오히려 新羅 土着的 傳統과 더 연루된 人物일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¹⁹⁾ 이런 점에서 鼻荊郎은 뒷날 金春秋의 정치성향과 完全히 배치되었다기 보다는, 동조할 수 있거나 또는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되면 鼻荊郎은 龍春과 接近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는 생각은 기우일 수 있다.

사실 龍春과 春秋는 父子 사이이지만 眞平王代 初期에 龍春의 政治的 立場이 眞平王代 末期 내지 眞德王代 春秋의 政治 性向과 반드시 一致해야 할 까닭은 없다. 그만큼 龍春과 春秋의 世代가 각각 처한 政治·社會의 現實은 달랐다. 그런데 眞平王代 初期 龍春의 政治 行蹟이 소상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龍春과 不합될 수 있고 어쩌면 龍春의 行蹟을 상징적인 說話로 부각시키면서 가공적으로 등장된 人物이라면, 鼻荊郎의 行蹟은 자세한 記錄으로 남겨지지 않은 龍春의 政治性向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그것은 반드시 龍春에 관한 기사는 아닐 수 있을지라도, 眞平王代 初期 舍輪系의 政治活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론이다.

眞智王이 廢位되고 眞平王이 即位하는 과정은 분명 銅輪系와 舍輪系의 對立을 생각할 수 있으나 現傳하는 史料上으로 그것은 극히 미약하게 나타나 있다.²⁰⁾ 왜 그렇게 記錄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解明되어야 하지만, 사실 眞平王代 初期에 銅輪系와 舍輪系는 서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君臨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¹⁾ 말하

19) 뒤에 本文에서 다시 言及되겠지만, 和自會議의 구성원인 林宗의 養子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吉達이다. 곧 그는 新羅 眞骨貴族과 연결되었음을 알려준다. 또 그는 鬼類 중에서 政朝를 도울자로서 補任되었다. 이 점 역시 鼻荊郎 보다는 훨씬 新羅 土着的 傳統에 더 密着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吉達이 去勢되는 것은 鼻荊郎과의 사이에 틈이 생겼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吉達은 여우로 변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그렇다면 吉達의 여우로 변하여 도망하는 모습이 鼻荊郎과 맞지 않을 수 있는 部分이며, 그것은 어쩌면 新羅 土着的 傳統을 더 강조하는 성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吉達門은 興輪寺에 속한 門樓인데, 興輪寺는 主尊이 彌勒尊으로서 新羅 公認佛敎의 傳統과 얽힌 寺刹이며, 王室은 물론 眞骨貴族의 입장에서 佛敎가 용납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성격의 興輪寺는 眞平王代에 오히려 眞骨貴族과 연루되는 면을 많이 지녔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眞平王代에 王室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佛敎信仰은 釋迦佛 및 帝釋信仰이기 때문이다. (金杜珍「新羅 眞平王代의 釋迦佛信仰」 pp. 17~24)

20) 銅輪系와 舍輪系의 血緣意識 사이에 배타성이 存在했음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李基東「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歷史學報』 53·54合輯, 1972; 前掲書, p. 88)

21) 眞興王代에서 武烈王代에 이르기까지 銅輪系와 舍輪系는 서로 앞치락 뒷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眞興王 당시 太子인 銅輪이 죽는 모습, 그 뒤 舍輪인 眞智王이 쫓으나 國人에게 廢位되는 모습, 다시 銅輪의 아들인 眞平王이 即位하는 사실, 그 뒤 결국 眞智王의 孫인 春秋가 即位하는

자면 두 세력이 비슷하여 비록 眞平王이 即位했을지라도, 舍輪系 세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眞平王이 即位하고 난 뒤 王權의 安定을 기도했을 때, 당연히 王室과 은근히 對立關係에 있었던 舍輪系의 협조를 구하려 했을 것임은 극히 가능한 일이다.

眞平王代 初期의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龍春은 眞平王의 사위로서 近侍職에 補任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王權의 安定을 위해 眞平王은 一方으로는 舍輪系를 제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鼻荊郎은 執事가 되고 난 후, 王이 보낸 勇士 50인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매일 밤이 되면 鼻荊郎이 멀리 달아나 놀기 때문이라 하였다. 舍輪系가 王權에서 벗어나 독자적 세력을 키워가려는 노력이 어찌면 “멀리 달아나 노는” 것으로 표현되었을 법하다.

鼻荊郎은 龍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說話 속의 人物이며, 眞平王代 初期에 舍輪系의 政治的 立場을 대변해 주고 있다. 即位하면서 眞平王은 舍輪系와의 협조를 통해 王權을 안정시키려 했다. 그런 면에서 舍輪系 내지 그들을 대표하는 龍春은 王室과 연결되어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王權에 의해 상당히 견제되고 있었다.

IV. 即位初 王室의 지지세력

眞平王은 銅輪系의 도움으로 即位하지만, 사실 銅輪系에 속했던 구체적인 人物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또한 眞平王의 即位가 舍輪系와의 유대로 이루어져서, 龍春과 같은 舍輪系의 人物도 王政에 깊이 參與했다. 이들 역시 眞平王代 初期에 王權의 安定에 기여했으나, 眞平王系와 결국에는 이해를 달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政治勢力은 銅輪系와 舍輪系가 갖는 政治力學 속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王室의 지지세력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어 그 성격을 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능한대로 眞平王代에 活動한 人物을 中心으로 王室의 支持勢力을 지적하여, 그들이 처한 政治的 立場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眞智王의 廢位와 眞平王의 即位에 직접으로 관여한 세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國人”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銅輪系가 주축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한 人物로 金后稷을 들 수 있다.²²⁾ 眞平王을 섬겨 伊淩이 된 金后稷은 眞平王이 即位한 다음 해에, 兵部令으로 補任되었다.²³⁾ 그가 眞平王代 初期에 兵權을 장악한 것은 銅輪系 세력의 核心人物로

사실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이들 兩系의 세력이 한 동안 서로 자용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을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22) 申澁植 「武烈王權의 成立과 活動」(『韓國史論叢』 2, 1977, p. 6)

2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2年 春 2月條에 「以伊淩后稷爲兵部令」으로만 되어 있으나, 同書 卷45, 列傳 第5, 金后稷傳에는 「事眞平大王爲伊淩 轉兵部令」으로 記錄되었다. 眞智王代에 이미 金后稷은 王의 경쟁자였던 白淨과 密着된 人物이었다. 眞平王이 即位한 다음 해에 兵權을 장악하고 있는 점에서 그는 眞平王系 勢力의 核心이었으며, 眞智王의 廢位에 직접 관여하였을

서, 실제 眞平王의 即位에 主動的인 役割을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바로 銅輪系 血緣集團에 속하였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智證王의 曾孫이기 때문에 金后稷은 銅輪이나 舍輪과는 아무리 가까워도 四寸 내지 六寸兄弟이었음이 분명하므로 銅輪系 血緣集團에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물론 舍輪系에 속해 있지도 않았다.

眞平王의 即位에 직접 關係한 人物은 주로 銅輪系이겠지만, 그 외 舍輪系가 아닌 王室의 血緣集團에 속한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社會를 이끌어 나가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 듯하다. 金后稷은 眞平王이 사냥을 좋아함을 忠諫하여

옛적의 왕은 一日동안에 萬機를 深思 熟考하여 左右에 바른 선비를 두고 直諫를 수용하고, 부지런히 힘써서 안일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그런 연후에 정사가 아름다워지고 國家가 가이 保全되는 것입니다. 지금 殿下는 날마다 狂夫 獵士와 더불어 매나 개를 놓아 쫓거나 토끼를 쫓고 山野를 달려 그칠 줄 모르시니…… 이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마음이 방탕하면 외적으로는 나라를 망치는 것이 온 즉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國史記』 卷 45, 金后稷傳)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諫言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諫言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金后稷은 병들어 죽었는데, 자기의 墓를 사냥길에 묻도록하여 眞平王의 방탕함을 막고 있다. 그리하여 眞平王은 「그의 忠諫은 죽어서도 잊지 않으니 나를 사랑함이 깊었다」(『三國史記』 卷 45, 金后稷傳)고 하면서, 다시는 사냥하지 않았다.

金后稷의 諫言은 진심으로 眞平王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펴나간 政策도 역시 眞平王을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眞平王을 위시한 銅輪系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王權 強化策과 연관되어 있었음직하다. 사냥에 대한 金后稷의 諫言이 언제 행해졌는지는 確言할 수 없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은 眞平王代 初期의 정세 속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 시기 王室의 王權 強化策이 견제세력에 의해 쉽게 펼쳐지지 못했을 것이다. 金后稷의 忠諫 내지 王權 強化를 위한 政策이 배제되어야만 했다면, 그것은 舍輪系의 세력이 濫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재를 받아 王室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했을 법하다.²⁴⁾ 眞平王代 初期에 王室勢力의 核心 人物들이 確固한 政策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은 王權이 強化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逆機能을 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王權을 強化시키는데 직접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近侍職에 補任된 人物 역시 眞平王의 지지세력이다. 이들은 이미 지적한 眞平王의 即位에 직접으로 關係한 세력과는 이해가 完全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近侍職으로는 舍人에 임명된 자들이 있다.²⁵⁾

법하다.

24) 金后稷의 忠諫은 비록 처음에 받아들여 지지 않지만, 그가 죽고 난 후 受容되고 있다. 이 점은 그의 諫言 내지 政策이 王政에 협조적인 것이었으며, 王室에 의해 거부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없었던 것임을 알려 준다.

25)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의 文翰機構의 擴張——中世的 側近政治의 志向——」(『歷史學報』 77, 1978; 前掲書, pp. 238~239)

眞平王代에는 王의 近侍集團이 確張되고 있었으며, 그들은 숫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왕의 家臣的 存在에서 벗어나 王權強化에 능동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이해된다.²⁶⁾ 그러나 眞平王代에 실제로 舍人에 임명되어 있었던 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舍인이 아닌 자로서 近侍職에 있었던 자들은 王室을 侍衛하는 武力을 담당하고 있었다. 王의 사냥에 직접 동원된 자들은 대체로 여기에 속해 있었고, 奚論은 그러한 人物로 이름이 알려진 자이다. 眞平王 40년에 그는 金山 幢主에 拜任되었다. 아마 王室을 侍衛한 經歷이 軍幢의 長으로 任命되게 하였음직하다. 眞平王 31년에 그는 椴峯城 縣令으로 나아갔는데, 그가 地方官으로 나아간 것은 역시 侍衛職에 있었던 공적 때문일 것이다. 모르긴 해도 王의 직접적인 武力기반을 형성한 侍衛官들은 일정한 경력을 쌓고는, 대체로 地方官으로 나아간 듯하다.²⁷⁾ 이러한 추론이 정당하다면 眞平王 46년에 地方官으로 있으면서 百濟軍을 맞아 끝까지 싸우다 戰死한 訥催도 처음엔 侍衛職에 있었지 않았나 추측된다.

眞平王代 初期에 近侍職으로써 王權의 신장에 보강되었던 舍人들이 眞平王代 後期에 서로 分裂을 보이고 있음이 흥미롭다. 眞平王 49년에 劍君이 舍人으로 봉직하고 있었다. 劍君은 宮中の 다른 여러 舍人과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그들에 의해 毆殺되고 있다. 물론 劍君은 다른 여러 舍人들이 唱鬻倉의 곡식을 도둑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 때문에, 正義롭게 죽는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그런데 劍君이 곡식의 도둑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風月徒에서 행실을 닦았기 때문이라 했다. 伊飡 大日의 아들인 近郎이 花郎이었는데, 그는 近郎의 門徒였다. 官中の 諸舍人과 劍君이 不和하게 되는 것은 그가 近郎의 門徒였던 사정이 작용하고 있었다.

劍君은 眞骨貴族인 大日의 門中과 연결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때 舍人들 사이의 對立이 어떤 정치적 양상 아래 전개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實兮를 통하여 조금더 분명하게 접근하고자 한다. 上舍人인 實兮는 王께 아침하는 下舍人인 珍堤와 對立하였다. 그러한 對立에서 珍堤는

實兮가 지혜는 없고 膽氣만 있어서 喜怒가 무상합니다. 비록 大王의 말씀이라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憤을 참지 못하니, 만약에 그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장차 亂을 일으킬까 염려됩니다. 그러한 즉 우선 내어 쫓았다가 그가 굴복한 후에, 다시 등용하는 것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三國史記』卷 48, 實兮傳)

李文基「新羅 眞興王代 臣僚組織에 대한 一考察」(『大丘史學』20·21合輯, 1982, p. 173)

26) 李文基「新羅 中古의 國王 近侍集團」(pp. 81~82)

李晶淑「新羅 眞平王代의 政治의 性格——所謂 專制王權의 成立과 關聯하여——」(『韓國史研究』52, 1986, pp. 19~20)

27) 新羅 中古時代 地方 州縣의 整備는 軍事組織이 정비되는 과정과 짝하여 이루어졌다. 智證王 6년에 州의 長官으로 軍事的 意味를 가진 軍主가 임명되고 있었다. 州의 설치는 眞興王代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었다. 그런데 法興王 25년에 外官으로 하여금 携家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外官의 군사적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었던 때문이지만, 또한 逆으로 外官이 바로 行政 및 軍事上의 책임자임을 오히려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

고 참조하였더니 眞平王이 그를 冷林으로 좌천시켰다.

實兮가 上舍人으로 奉職하고 있었던 時期를 分明하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珍堤와 언제 對立하고 있었는지도 不分明하다. 모른긴 해도 그것은 眞平王代 後期였을 것이며, 어쩌면 劍君이 다른 여러 舍人과 對立하고 있었던 당시였을 법하다. 實兮와 珍堤의 對立은 舍人들 사이의 分裂로 나타났으며, 그 중 珍堤가 더 王權에 密着된 人物이다. 왜냐하면 史料가 알려주는 분위기는 珍堤가 王에게 아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곧 眞平王代 後期에는 王權의 確實한 지지자였던 近侍職 乃至 侍衛職에 있었던 자들이 서로 分裂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이 王權을 뒷바치는 役割을 充實히 이행해 나갈 수 없었다.

近侍職에 있었던 자들의 세력이 점차 약해져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眞平王의 即位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세력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다. 金后稷은 王의 사냥에 수행한 자들을 狂夫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王의 마음이 내적으로 방탕하여져서, 결국 나라를 망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가하면 侍衛職에 있었던 자들이 뒤에는 상당수가 地方官으로 나아갔는데, 당시 高句麗·百濟와의 빈번한 戰爭은²⁸⁾ 실제로 城을 지키고 있었던 많은 地方官의 희생물 가져왔다.²⁹⁾ 이리하여 眞平王代 初期 王室의 지지자로서 近侍職에 있었던 자들의 세력은 眞平王代 後期에까지 王權을 계속해서 뒷받침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眞骨貴族 중에 철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王室에 협조한 자들이 있었다. 물론 이들은 舍輪系와도 일정한 關係를 유지한 듯하다. 이러한 세력에 속한 자로 林宗을 들 수 있다. 眞平王은 鼻荊郎이 추천한 吉達을 林宗의 養子로 삼겠금 주선하고 있다. 또 林宗은 吉達을 시켜 興輪寺 남쪽의 樓門을 짓게 하고 있다. 興輪寺가 轉輪聖王 信仰의 상징으로 창건되었고 眞平王은 비록 釋宗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도 엄밀히 말한다면 轉輪聖王 信仰을 깔면서 거기에 더 권위를 부친 것이다.³⁰⁾

그런데 林宗은 和白會議의 구성원인 眞骨貴族이었다. 다음 記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王(眞德)의 代에 關川公·林宗公·述宗公·虎林公·廉長公·庚信公이 南山의 汚知岩에서 國事를 議論했다. 때에 大虎가 좌석 사이로 뛰어들어왔으므로 諸公이 놀라 일어났으나, 關川公이 태연하여 움직이지 않고는 談笑 自若하면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 땅에 처박아 죽였다. 關川公의 膂力이 이와 같아서 首席에 앉았다. 그러나 諸公은 모두 庚信公의 威勢에 복종했다. (『三國遺事』卷 2, 眞德王條)

28) 金晶淑「新羅 眞平王代의 政治의 性格」pp. 23~26)

29) 上同論文(pp. 24~25)에서는 빈번한 戰爭의 와중 속에서 築城·設柵 등을 위한 막대한 인원의 동원 등으로 國力을 집중하면서, 眞平王代의 王室은 오히려 王權의 신장을 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戰爭을 통해 奚論이나 訥催 등 본래 王室의 武力을 뒷받침했던 자들이 去勢되어 갔을 수 있으며, 또 戰爭의 승리로 인한 새로운 英雄이 탄생할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 娘臂城戰鬪 後 金春秋 勢力이 歷史의 표면으로 등장함은 이런 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당시 三國의 빈번한 戰爭으로 王權은 어쩌면 기울 수도 있었다.

30) 金杜珍「新羅 眞平王代의 釋迦佛信仰」(pp. 18~19)

林宗 뿐 아니라 關川·述宗·虎林·廉長·庾信 등은 政事를 처리하면서 全員 一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利害가 一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和白會議를 이끌어가던 위치에 있었던 關川과 그 구성원인 庾信의 權威가 서로 열등하지 않은 듯이 對照적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 점은 두 사람이 처한 미묘한 立場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眞德王代에는 이미 金春秋·庾信이 政治的 實力者여서 新羅 政界를 움직여가고 있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關川의 권위는 金春秋로 대표되는 새로운 政治 權力과 연루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和白會議의 傳統을 고수하려는 데서 오는 것으로, 庾信을 除外한 林宗 등 다른 和白會議 구성원들과 대체로 立場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³¹⁾ 그런 면에서 林宗 등 眞骨貴族들 중 상당수가 소극적이지만, 眞平王代 王權의 지지자로 活動하였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政治적으로 所信이 확고한 [것이 아니어서; 眞平王代 後期를 지나 정세가 변화되는 속에 계속해서 王權의 지지자로 남아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林宗의 王室에 대한 立場을 더 자세하게 추구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養子인 吉連이 眞荊郎에 의해 처단되고 있다. 이 점은 역시 林宗이 舍輪系, 다시 말해 뒷날 金春秋 系列과 맞지 않음을 시사한다. 眞平王代에 眞骨貴族 세력은 분열되어 있어서 政治權力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자들도 없지 않으나,³²⁾ 林宗의 政治적 立場은 和白會議에 참석한 眞骨貴族 특히 關川의 그것과도 일맥상통한 면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면 뒷날 眞德女왕이 죽자 群臣들이 關川으로 하여금 攝政하도록 請하자, 그는

臣은 讎었고 가이 칭할 만한 德行도 없다. 지금 德望이 崇重한 자는 春秋公만한 이가 없으니, 실로 世上을 바로 잡을 英傑이라 할 수 있다. (『三國史記』卷 5, 太宗武烈王 即位條)

고 하면서 辭讓함으로, 드디어 春秋가 武烈王으로 即位하였다. 眞德王 死後에 비록 政治的 實權은 春秋가 쥐고 있다 하더라도 和白會議의 결정은 關川의 攝政을 요구하고 있었다. 關

31) 물론 庾信 외에 和白會議의 다른 구성원이 모두 林宗과 같이 王室의 지지로 기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중 述宗公은 竹旨의 父親으로 眞德王代에 까지 그 行跡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竹旨가 眞德王 5년에 설치되는 執事府의 侍中에 임명되고 있다. 곧 그는 金春秋·庾信 一派의 協助者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述宗公 역시 庾信과 對照될 수 있는 人物은 아니었을 법하다.

32) 眞平王 9년에 奈勿王의 七世孫인 伊演 多臺의 아들 大世와 그의 친구 仇柴이 南海로부터 배를 타고 멀리 떠나 應運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王政에 소외 되어 있었던 眞骨貴族 勢力이 상당히 存在했음을 뜻해 준다. 또 三國史記 卷47 薛顯頭傳에서 薛顯頭는 「新羅用人論骨品 苟非其族 雖有鴻才傑功 不能踰越 我願西遊中華國 奮不世之略 立非常之功 自致榮路 備管紳劔佩 出入天子之側尼矣」라 하면서, 眞平王 43年(621)에 入唐하여 遼東戰役에서 큰 공을 세우고는 戰死하고 있다. 곧 薛顯頭는 六頭品 出身으로 骨品制에 대해 批判하고 있다. 이 점은 眞平王代 貴族 勢力 사이에 分裂과 아울러, 政治權力에서 소외되었던 자가 다소 있었음을 상징하게 한다. 다만 그가 中國의 體制를 긍정적으로 보는 立場에서 骨品制를 비판하고 있음은, 뒷날 金春秋 勢力의 등장과 얽혀 있을 법하다. 眞平王代의 人物로 金令胤의 祖父인 欽春이나 眞平王代 初期에 上大等이었던 野里夫·首乙夫 등은 모두 眞骨貴族들이지만 現在 그 政治的 立場을 분명히 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들은 林宗 등과 비슷한 政治的 立場을 견지한 듯하다. 眞平王 53년에 叛亂을 일으켰다가 去勢되는 柴宿·石品 등도 眞骨貴族이며, 이들은 어쩌면 金春秋 勢力에 의해 처단되지 않았을가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들도 林宗 등과 같이 眞平王의 상당한 지지 세력이었을 법하다.

川이 攝政으로 지목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林宗 등과 같이 眞平王代 王室 지지세력에 속할 수 있었던 政治的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和白會議의 決議를 따르지 못하고 스스로 金春秋에게 王位를 넘기고 있다. 말하자면 林宗 등 眞骨貴族이 眞平王代 初期에 王室 지지세력으로 存在하였지만, 그들은 確固한 신념으로 王室을 뒷받침하였다기 보다는 시세에 따라 처신을 달리할 수 있었다.

眞平王代 初期에 王室은 王權을 安定시키면서 權力을 集中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갔다. 王室이 舍輪系의 협조를 얻으려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당시에 王室의 지지세력으로 銅輪系를 위시하여 眞平王을 옹립하는데 직접 참여한 人物을 들 수 있다. 또한 王權을 強化하는데 깊이 관여한 近侍職 내지 侍衛職에 補任된 자들이 있다. 이 두 세력이 王權을 지탱하는 核心을 이루고 있었다. 그의 眞骨貴族 중에서도 王室의 지지세력이 다소 存在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세력도 確固한 政策과 신념으로 眞平王代의 王權 신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특히 王室의 武力基盤을 이룬 側近勢力들이 分裂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眞平王代의 王權強化는 스스로 限界性을 가졌으며, 眞平王代 後期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失敗하는 方向으로 기울고 있었다.

V. 制度의 整備

眞平王代에는 많은 官制가 정비되었다. 당시에 어떤 官制가 갖추어져 갔는지에 대한 이해는 眞平王代 政治의 性格을 규정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眞平王代의 官制整備 過程은 비교적 많은 論文으로 言及되었고, 그 중에는 新羅의 專制政治가 眞平王代에 成立된다는 結論을 이끌어낸 것도 있다.³³⁾ 그런가 하면 이러한 見解에 회의적인 論述도 있다.³⁴⁾ 制度의 整備과정을 통해 眞平王代의 政治의 성격을 부각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것이면서도, 그것이 피상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어서, 당대의 정치 현상을 보는 시각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다.

眞平王代를 통해 가장 많이 整備된 것은 역시 兵制였다. 그것에 관한 사항을 들면 아래와 같다.

- ① 眞平王 5年(583)에 誓幢을 비로소 설치했다. (眞平王 35년에 緣衿誓幢으로 고침)
- ② 眞平王 11年(589)에 兵部의 弟監 2人을 두었다.
- ③ 眞平王 13년에 四千幢을 두었다.
- ④ 眞平王 26年(604)에 軍師幢을 두었다.

33) 金晶淑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pp. 15~22)

34)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襄主의 改革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시 機密事務를 掌管하는 執事部의 설치나 거두어들이는 貢賦를 貴族에게 分配하는 官부인 倉部의 설치가 眞德王代에 이루어 졌다.

- ⑤ 國王 27년에 急幢을 두었다.
- ⑥ 同王 45年(623)에 兵部の 大監 2人을 두었다.
- ⑦ 同王 47年(625)에 郎幢을 비로소 設置했다. (文武王 17년에 紫衿誓幢으로 고쳤다.)

眞平王代에는 下給 官員을 두면서 兵部 自體가 整備되어가는 한편, 많은 특수한 부대가 창설되고 있다. 이 점은 眞平王代의 王權이 強化되어가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兵制의 整備는 新羅 中古時代를 통하여 一貫하여 계속되어온 政策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新羅가 王室 中心의 貴族國家로의 體制整備를 단행한 法興王代에 兵部가 처음으로 設置되고 있다. 法興王 3년에 兵部令 1人이 두어졌고 다시 眞興王 5년에 1人이 늘었으며, 太宗 6년에는 다시 1人이 늘어 兵部令은 도합 3人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法興王 10년에 監舍知가, 同王 11년에는 軍師幢主가 두어졌다. 眞興王代에도 역시 兵制의 정비가 계속되었다. 眞興王 10년에 大官 大監이 두어졌고, 同王 23년에 弟監과 少監이 두어졌다. 또 同王 12년에 두어지는 國統도 武官의 정비와 연관시켜 이해될 수 있다.

法興王 7년에 律令이 반포되었다. 그것은 法興王代에 일단 新羅 國家의 全般的인 體制整備가 마무리됨을 뜻해 준다.³⁵⁾ 聯盟王國에서 王室 中心의 貴族國家로의 體制整備를 단행해 가면서, 新羅는 中央 行政區劃의 정리와 결하여 地方의 州縣을 정비하여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新羅는 中央과 地方 行政區域을 군사조직과 짝하여 정비해 갔다. 그리하여 州의 장관에 軍主가 임명되었다. 말하자면 군사조직과 아울러 地方制度를 위시하여 國家體制가 整備되어갔고, 法興王代의 律令頒布는 이러한 성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³⁶⁾

眞平王代에 親衛部隊와 같은 특수한 성격을 갖는 誓幢이 設置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뒤에도 계속 設置되어 九誓幢으로 완성되는 것은 神文王代의 일이다. 그렇다면 眞平王代 兵制의 정비는 역시 法興·眞興王代에 그것이 정비되는 것과 계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王族 中心의 貴族國家 體制를 完成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하여 眞平王代 이후에도 兵制는 계속 정비되어 갔고, 專制主義를 마무리 짓는 中代初期에까지 그것은 지속되어 갔다.³⁷⁾ 그렇다면 兵制의 정비를 들어서 眞平王代에 특별히 專制王權이 成立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듯하다.

兵制 이외에도 眞平王代에는 비교적 많은 官制가 정비되고 있다. 다음 <表 2>를 참고하기로 하자. 그런데 眞平王代 中央 행정관서의 設置는 同王 13年 以前에 집중되고 있다. 그

35) 金龍善 「新羅 法興王代의 律令頒布를 둘러싼 몇가지 問題」(『加羅文化』 1, 1982, pp. 126~128)

36) 金杜珍 「新羅 公認佛敎의 思想과 그 政治史的 意味」(『斗溪李丙癸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1987, 知識産業社, pp. 94~96)

37) 武烈王代에 兵部の 令이나 大監 2人에 다시 1人을 추가하여 3人으로 만들거나, 弟監을 고쳐 大舍를 두었다. 또 文武王 11년에는 兵部の 史 12人과 寫幢 1人을 두었으며, 九誓幢이 계속해서 設置되어 가는 외에도 仲幢이나 仇七幢 등이 設置되었다. 이러한 特殊部隊의 設置는 神文王代에도 계속되어 皆知戟幢·三邊守幢 등이 두어졌다.

〈表 2〉眞平王代의 官制整備

年 代	內 容
眞平王 3年(581)	始置 位和府(吏部)
" 5年(583)	始置 船府署 大監 1人, 弟監 1人
" 6年(584)	置調府令 1人(掌賞賦)
" "	置乘府令 1人(掌車乘)*1)
" 7年(585)	三宮各置私臣
" 8年	置禮部令 2人
" 11年(589)	置稟主大舍 2人
" 13年(591)	置領客府令 2人*2)
眞平王 43年(621)	改倭典爲領客典
" 44年(622)	置內省私臣 1人 兼掌三宮
" 46年(624)	置賞賜署 大正 1人
"	置大道署 大正 1人
"	置侍衛府 大監 6人

*1) 本紀에 依함.

2) 本紀에 依함.

리고는 다시 末期인 眞平王 43년에 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³⁸⁾ 眞平王代 初期에 官制가 정비된 후, 근 30餘年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정비되는 官制의 성격은 初期에 정비된 그것의 성격과 구별할 必要가 있다. 다만 眞平王代의 官制整備는 각종 官府가 다양하게 設置되어 일종의 分業을 형성하였고,³⁹⁾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직이 설치됨으로써 그것이 더 組織化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었다.⁴⁰⁾ 이러한 특징 때문에 眞平王代의 官制整備는 그 以前 時代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變化가 있었음이 분명하다.⁴¹⁾

그러나 眞平王代의 官制는 어떠한 目的 의식에서 일시적으로 정비된 것은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것은 眞德王代의 官制整備와 비교 考察할 必要가 있다. 眞德王代의 官制가 정비되는 모습은 다음 〈表 3〉으로 제시될 수 있다.

眞德王代의 官制는 同王 5年(651)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런데 眞平王 13년까지 설치되는 官制와 眞德王 5년에 設置되는 그것은 매우 흡사한 데가 있음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眞平王代 初期에 整備되는 官府는 貢賦를 걷어들여 관장하는 稟主와 調府·船府·乘府 등이다. 이들 官府가 집중적으로 정비되어 完備되는 것은 역시 眞德王代이다. 그의 領客府는 바로 眞平王代에 設置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⁴²⁾ 位和府는 眞德王代에 左理方府

38) 金晶淑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p. 14)

李文基 「新羅 中古의 國王 近侍集團」(p. 79)

39) 木村誠 「6世紀新羅における骨品制の成立」(歷史學研究 428, 1976, pp. 22~26)

40) 三池賢一 「新羅官制と社會身分」(日本史研究 150·151合輯, 1975, pp. 83~85)

41) 李文基 「新羅 中古의 國王 近侍集團」(p. 80)

金晶淑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p. 15)

42) 領客府의 設置는 많이 混動되어 있다. (李文基 「新羅 中古의 國王近侍集團」(p. 79))

〈表 3〉 眞德王代의 官制整備

年 代	內 容
眞德王 5年(651) "	改稟主爲執事部, 置中侍 1人 置侍衛府 將軍 6人
" (眞德王代) 眞德王 5年(651) " " " " " " " "	置調府令 2人 置調府 大舍 2人 分置倉部令 2人, 卿 2人, 史 8人 置禮部 卿 2人*1 置禮部 大舍 2人, 史 8人 置領客府 令 2人*2 置賞賜署 大舍 2人 置工匠府 主書 2人 置彩典 主書 2人 置典祀署 大舍 2人 置國學 大舍 2人
眞德王 6年(652)	置左理方府令 2人, 卿 2人, 佐 2人

*1) 眞德王 2年이라고도 함.

2) 職官志에 의함.

의 設置로 더 조직화되어갔다.

眞平王 8년에 禮部令 2인이 두어졌고 眞德王代에는 그 밑에 다시 卿 2人, 大舍 2人, 史 8인이 두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말하자면 眞德王代의 官制整備는 眞平王代 初期에 설치된 官制를 確固하게 完備하면서, 그의 工匠府·彩典·典祀署 등 구체적인 官府를 설치해 갔다. 또 그러한 구체적인 官府의 整備나 이미 設置된 官府의 下給 體制를 더 조직화하여 그것이 일단락되어 完成되는 것은 神文王代에 와서였다.⁴³⁾ 그렇다면 眞平王代에 서서히 정비되기 시작한 新羅 中央官署는 그 과정이 집중적인 또는 완만한 차이는 있었다 하더라도, 神文王代에 完成되어 中代의 專制主義를 定立시켜 갔다.

眞平王代에서부터 神文王代에 이르기까지의 줄기찬 官制의 整備가 中代의 專制主義를 여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중 專制王權을 強化하는 決定的인 조처는 眞德王 5年の 일련의 改革이다. 그리고 그 改革의 核을 이루는 것은 역시 執事部の 設置와 侍衛府의 改편

『三國史記』 卷4 眞平王 13年條에는 「置領客府令二員」이라 하였는데 『三國史記』 卷38 職官志 上的 領客府條에는 「本名倭典 眞平王四十三年 改爲領客典……令 二人 眞德王五年置 位自大阿漢至角干爲之」라 하였다.

43) 武烈王에서 神文王代에 이르기까지에도 많은 官制가 정비되고 있다. 武烈王 6년에 司正府가 설치되었다. 文武王代에는 同王 7년에 右理方府가 설치되었으며, 同王 18년에 船府, 同王 17년에 左司祿館, 同王 21년에 右司祿館이 설치되었다. 또 文武王代에는 이미 설치된 官署의 실무 下給 官員이 많이 두어졌다. 곧 同王 15년에는 調府·倉部·禮部·乘部·領客部·司正府 등의 下給 官員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神文王代에 가서 完備되어지는 느낌을 준다. 神文王 6년에 例作府가 설치되고, 그의 同王代에 執事部·調府·船府·位和府·工匠府·彩典 등의 下給 官員이 설치되었다.

작업이다. 執事部는 王政의 機密을 管掌함으로써 專制王權의 成立에 직접 參與했으며, 長인 中侍는 貴族 全體의 統率者라기보다는 國王의 行政的인 代辯者로서 專制王權의 手足과 같은 存在였다.⁴⁴⁾ 侍衛府는 궁성을 숙위하고 王室을 호종하는 國王 직속의 군사조직으로⁴⁵⁾ 專制王權의 武力을 뒷받침하였다.

眞德王代의 官制가 國王 5年 일시에 整備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專制主義를 지향하고 있다. 倉部和 禮部가 설치되어 그 長官에서부터 下給 官員인 史에 이르기까지 그 조직이 完備되고 있다. 그런데 朝貢이나 戰爭으로 획득한 產物의 分배를 담당하는 倉部の 設置는⁴⁶⁾ 그러한 產物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던 貴族들을 효과적으로 制御할 수 있었다. 卿이나 大舍·史 등을 두어 下部組織을 정비한 禮部는 王의 명령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官僚群의 規律을 管割함으로써, 그들을 統御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眞德王 6년에 左理方府의 設置는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眞德王 5年の 官制整備는 專制王權의 成立에 決定的인 계기를 마련한 셈인데, 실제로 당시의 改革을 주도한 세력은 眞德王이라기 보다는 舍輪系 즉 金春秋와 金庾信 一派였다.⁴⁷⁾ 그들은 그러한 專制主義的인 制度의 장치를 통하여 和白會議의 결정을 뒤엎으면서 王位를 차지할 수 있었다.⁴⁸⁾ 다만 眞平王代의 官制整備는 眞德王代의 그것에 비해 專制主義的인 性格을 강하게 내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方向으로 改革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그런데 특히 眞平王代 末期의 官制整備는 眞德王代의 그것과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었다. 眞平王 43年の 領客典 記事는 混動되어 있어서 高麗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眞平王代 末期 官制改革의 核心은 한 사람의 內省私臣을 두어 그로 하여금 三宮을 장악하게 한 것이다.

內省의 設置는 國王의 近侍集團을 하나의 體系로 統合 組織化한 것인데,⁴⁹⁾ 당시에 私臣으로 임명된 자는 龍春이었다. 王權強化와 직결되면서 王의 직속 臣僚를 統割할 수 있는 私臣에 舍輪系인 龍春이 임명되고 있는 셈이다. 사실 內省私臣의 설치는 龍春이 政治的인 實力者로 등장하는 사실과 포리관계에 있었다.⁵⁰⁾ 이후 龍春은 兵部令을 겸하고 있어서 兵權을 쥐고 있었으며,⁵¹⁾ 眞平王 51년(629) 娘臂城戰鬪를 계기로 銅輪系 勢力을 제어하면서 실제로 新羅 社會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眞德王 5年の 改革政治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44)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pp. 151~159)

45) 李文基 「新羅 侍衛府의 成立과 性格」(pp. 42~45)

46) 李基白 「稟主考」(p. 143)

47) 李基白 「上大等考」(『歷史學報』 19, 1962; 前掲書, p. 101)

井上秀雄 「新羅政治體制의 變遷過程」(『古代史講座』 4, 1962, pp. 207~208)

48)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p. 153)

49) 金鼎淑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인 性格」(p. 20)

50) 上同論文, pp. 20~22.

51) 申滢植 「新羅 兵部令考」(『歷史學報』 61, 1974, p. 75; 『韓國 古代史의 新研究』, 1974, pp. 157~158)

眞平王代 末期의 官制改革은 역시 龍春系 勢力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오히려 專制主義의 성향을 지니는 면에서 眞德王 5年の 改革政治와 맥락이 통하게 된다. 侍衛府는 비록 眞德王 5년에 그 조직이 강화되었지만, 眞平王 46년에 設置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同時に 設置되는 賞賜署와 大道署는 그 名稱으로 보아 官吏의 서훈을 담당한 것으로,⁵²⁾ 專制主義를 지향하는 제도임을 유념할 必要가 있다. 그런데 眞德王 5년에 賞賜署의 下給官員이 設置되고 있음도 우연하게 생각되어질 수 없다. 곧 眞德王代에 賞賜署나 大道署의 조직이 完備되어 간 듯하다.

眞德王代 末期의 官制改革은 眞德王代의 專制主義로의 改革과 맥락이 닿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眞平王代 初期의 改革은 眞平王代 末期의 그것과는 달리 파악될 수 밖에 없다. 다만 眞平王代 初期에 整備되는 官制가 그 前代의 그것과 비교하여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前代와는 달리 專制主義를 달성시키면서 王權을 強化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첫째 眞平王 3년에 設置되는 位和府는 吏部로서의 性格을 지니는 것이지만, 官僚를 統御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眞德王代 이후에 左·右理方府가 設置되고 있음은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⁵³⁾ 비록 禮部가 眞平王 8년에 設置되기는 했어도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은 역시 眞德王 5년에 그 下給 官員이 두어지면서 부터였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位和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眞平王代 初期에 그것은 官僚의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眞骨貴族의 전유물로써 운영되었을 것이다.

둘째 位和府의 기능이 貴族의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稟主에 대한 改革이 철저하지 못하였다. 眞平王 11년에 稟主 大舍 2인이 두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眞德王代 執事部の 成立과는 性格을 달리하는 것으로, 王權의 強化를 위한 機密사무를 관장하는 독특한 기구로 成立되지는 못했다. 이 점은 역시 王室이 側近勢力이나 武力基盤인 舍人이나 侍衛軍을 확보하는 方向으로 제도 개편을 심사시키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王權強化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眞平王 7年 三宮에 각각 私臣이 두어지고 있었다. 적어도 王의 近侍集團은 大宮·梁宮·沙宮 등 三宮으로 分散되어 있었던 셈이다.

셋째 稟主의 개편과 함께 專制王權의 成立에 限界性을 들어 내주는 것은 調府의 設置이다. 調府는 貢賦를 관장하기 때문에 본래 稟主가 가졌던 기능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⁵⁴⁾ 眞平王 6년에 獨立된 官府로 設置되었다. 본래 貢賦는 걸우어들이는 기능과 아울러 그것은 分配하는 기능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이미 지적했듯이 그것의 분배에 관한 기능을 갖는

52) 李基白「稟主考」(pp. 142~143)

53) 물론 眞平王 3년에 設置된 位和府는 뒷날 左·右理方府가 分化되어 나가기 前까지는 官僚를 統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이 未分化되기 이전에 비록 位和府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약하게 나타났거나 有名無實했을 지도 모른다.

54) 李基白「稟主考」(pp. 142~143)

倉部는 眞德王代에 설치되었다. 貢賦의 관할과 아울러 생각되는 것은 乘府 및 船府署의 정비이다. 그런데 眞平王 5년에 船府署는 長官 뿐아니라 그 下給 官員까지를 어느 정도 整備하고 있다. 交易이나 貢賦의 수송에 관한 기능을 가졌던 船府署나 乘部가 더 정비되었다는 것은 調府의 설치와 맥락을 같이한다. 貴族들은 길은 貢賦의 분배에 더 關心을 가졌는데, 그것을 길는데 더 치우친 調府의 設置를 통해 王室은 貴族들을 專制王權 속에 쉽게 묶어둘 수는 없었다.

네째 眞平王代 初期에 設置된 官府들이 下給 官員을 정비하고 있지 못해서 인지는 몰라도, 그 독특한 기능을 행사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인지 官府의 設置가 다소 混動되고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領客府 내지 領客典의 設置에서 그런 면을 말할 수 있다. 그외 乘府令은 三國史記 新羅本紀에서는 1인으로 되어 있으나 同書 職官志에서는 2인으로 되어 있다. <卷 38, 職官志 上> 그러나 비교적 중요한 官署인 調府令 1인이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平王 6년에 設置된 것으로 記錄되어 있으나, 同書 職官志에는 調府令 2인이 眞德王 5년에 設置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調府의 設置에 대한 이러한 엇갈린 記錄은 그것이 적어도 眞平王代 初期에 設置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設置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실히 수행하게 되는 것은 眞平王代 初期가 아니라 眞德王代였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眞平王代 初期에 두어지는 官制는 그 以前 時代에서 설치된 것과는 큰 變化를 가졌으며 眞德王代 및 그 이후 神文王代의 官制整備과 대체로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專制主義로의 개혁을 지향하며 王權을 強化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眞德王 5년에 改革되거나 더 組織化되는 官制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眞平王代 初期에 그 官府의 독특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專制王權을 成立시키는 政治改革은 아니었다. 오히려 眞平王代 末期에 단행된 官制改革이 훨씬 專制主義로의 접근이 용이한 것이었지만, 그것 역시 眞平王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眞平王代의 官制整備은 王權強化를 의도한 改革임에는 틀림없으나 當代 王室의 專制主義를 成立시킨 것은 아니었다.

VI. 結 語

新羅 中古時代의 末期인 眞平王代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眞平王은 聖骨身分으로는 마지막으로 即位한 男子王이며, 여러 가지의 改革政治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眞興王 死後 太子인 銅輪系와 次子인 舍輪系의 對立이 계속되었고, 眞平王의 即位後에도 이러한 문제는 當代의 政治 상황이 전개되어 나가는데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眞平王의 即位와 同王代 初期의 政治 상황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資料로 비록 說話로 전하긴 하지만, 「桃花女·鼻荊郎」條를 주목하였고, 그것을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新羅 政治

史의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 眞智王의 魏과 沙梁部 庶女인 桃花女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鼻荊郎은 眞平王代 初期에 活動하고 있었는데, 실제 眞智王의 아들인 龍春과 상당히 비슷한 政治性向을 가졌다. 곧 鼻荊郎은 後代에 龍春의 행적을 상징적 說話로 꾸미면서 가공적으로 만들어진 人物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鼻荊郎은 初期 龍春의 政治行跡을 살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鼻荊郎과 眞平王과의 關係나 또는 龍春이 眞平王의 사위였다는 사실에서, 眞平王代 初期에 王位를 장악한 銅輪系는 舍輪系와의 협조로 王權의 安定을 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眞平王은 即位初에 王權을 強化하려 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眞平王의 即位에 직접 關係한 銅輪系를 비롯한 金后稷과 같은 貴族勢力은 王權強化를 위한 政策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王室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이 둘과는 달리 王權을 強化시키는데 직접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近侍職이나 侍衛職에 補任된 人物들 역시 眞平王의 지지세력이었지만,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서로 分裂되면서 眞平王代 後期까지 계속해서 王權을 뒷받침할 수 있는 位置로 남지 못했다. 다음으로 철저한 것은 아니지만 眞骨貴族 중에서도 林宗과 같은 王室에 협조한 人物이 다소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確固한 信念으로 王室을 뒷받침하였다기 보다는 時勢에 따라 處身을 달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眞平王代의 王權強化는 스스로 限界性을 가졌다.

셋째 眞平王代의 官制整備은 그 前代의 그것과 비교하여 큰 變化를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專制主義로의 改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은 眞平王이 舍輪系와의 협조로 王權을 安定시키면서, 한편 그것을 점차 강화하려는 것과 서로 통하는 면이다. 그런데 眞平王代에 設置된 官制의 가장 많은 部分을 차지하는 것은 兵制였고, 그것은 法興王代에 兵部가 설치되고 난 이후 中古時代 내지 中代 初期에 이르기까지의 一貫된 政策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兵制 以外에 整備되는 官制는 眞德王 5年 및 그 이후 神文王代까지 整備되는 官制와 그 性格을 같이 한다. 眞平王代의 官制는 專制主義를 지향하지만 실제 專制主義를 成立시키는 政治改革은 眞德王 5年の 官制整備이고, 이것은 眞平王代 末期의 官制整備와는 맥락을 같이 한다. 말하자면 이 둘의 改革조치는 舍輪系의 주도로써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眞平王代 初期의 官制整備는 後期の 그것과 性格을 달리하며 王權을 專制化하는 데에는 限界性을 갖는 것이고, 실제 이때 設置된 官府는 그 독특한 기능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다.

眞平王은 비교적 긴 기간을 王位에 있었지만, 初期에 그가 행한 王權強化를 위한 改革조치는 실패로 기울었다. 다만 後期の 改革 조치는 오히려 專制主義를 強化하려는 性格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지만 龍春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후 勢力基盤을 확대시킨 舍輪系는 眞德王代 專制主義로의 改革을 단행하면서 王位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198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